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로 엮은 십자가의 길

주도자(†)가 읽는 부분은 2023 년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해설자(●)가 읽는 부분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을 묶은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시작기도

† (제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을 찬미하여라.”¹

오늘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를 엮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지니셨던 감수성’²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기후위기 속 가난한 이들과 생태계의 울부짖음을 들으려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³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¹ 교황 프란치스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이하 LD)」, CBCK, 2023, 1 항.

² 위의 책, 1 항.

³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이하 LS)」, CBCK, 2015, 1 항.

제 1 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져 가고

어쩌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의 충격이 많은 사람과 가족의 삶에

점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LD 2)

-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환경 이민, 지구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해양의 산성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떨어질 수 없는 측면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는, (...)

이른바 잘사는 사회, 지나친 군비 지출, 버리는 문화,

변두리의 소외 계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흡한 세계관,

어린이와 미성년자와 힘없는 노인들, 태아에 대한 보호 부족 등이 있습니다.⁴

† 영광송

제 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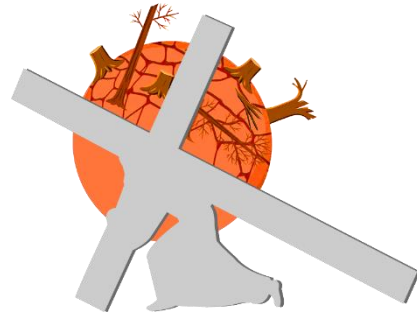
⁴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97 쪽.

†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며 위장하거나 상대화하려고 하여도,
기후 변화의 표징들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구 온도가 섭씨 0.5 도 오를 때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이,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혹설이 발생할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D 5)
이는 많은 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칩니다. (LD 15)

-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이 이주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 또한 생계에 타격을 받아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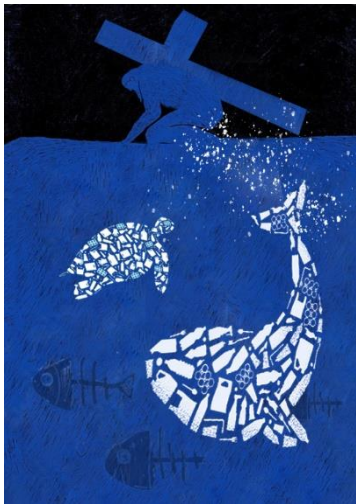
† 영광송

제 3 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⁵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25 항.

† 기온 상승은 지구 표면뿐 아니라 수 킬로미터 높이의 대기권에서도,
해수면을 비롯하여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바다의 산성화를 증가시키고 산소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빙하가 줄어들고 적설량이 감소하며 해수면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LD 12)



● 저는 수년 전에 한 할머니가 하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남용도
늘 용서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늘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몇 번 용서하지만,
지구는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구가 파괴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누이인 지구,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합시다.⁶

† 영광송

제 4 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꺾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⁷

⁶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42 쪽.

⁷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241 항.

-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킬 때,
우리는 크든 작든 피조물의 변형과 파괴에 일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⁸

† 성모송

제 5 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우리를 환대하는 세상과 화해하는 여정에
모든 이가 동반자가 되도록,
그리고 저마다의 기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한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LD 69)

- 연대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다름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형제애의 마음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자세입니다.⁹

† 영광송



⁸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51 쪽.

⁹ 위의 책, 40 쪽.

제 6 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LD 65)

-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

자연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간과하는 사회는
자연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참된 피조물을 악용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염려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여러 인간 문제에 대한 염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¹⁰

† 영광송

제 7 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¹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서문.

† 인공지능과 최신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발상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기술의 도움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괴물처럼 자기 자신을 먹어

양식으로 삼습니다. (LD 21)

- 현실에서 아직도 화석 연료가 세계 전체 에너지의 8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화석 연료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LD 50)

모든 미래의 문제가

새로운 기술적인 개입으로 해결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치명적인 실용주의입니다. (LD 57)



† 영광송

제 8 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코로나 19는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의 두 가지 확신을 성가실 정도로 강조하며
반복하고자 합니다.

곧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LD 19)

- 우리는 피조물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착취할 때,

하느님 사랑의 표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¹¹

† 영광송

제 9 처 예수님께서 세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하느님께서는 ...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LD 68)

-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졌습니다.

¹¹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35-36 쪽.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¹²

† 영광송

제 10 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 특히 더 가난한 이들을
더 악화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LD 53)

-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덜 탐욕적이고 더 평온하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더 형제적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¹³

† 영광송

¹²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21 쪽;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33 항

¹³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하는 아마존」, CBCK, 2020, 58 항.

제 11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저는 권력자들에게 감히 반복하여 묻습니다.

“시급하고 필요한 때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기억될 권력을
오늘 무엇 때문에 지키려 합니까?” (LD 60)

- 불의 앞에서 모세가 분노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셨듯이,

하느님께서 노여워하셨듯이,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악에 익숙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파괴와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특히 농부와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착취 앞에서

우리의 사회적 양심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¹⁴

† 영광송

제 1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¹⁴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하는 아마존」, CBCK, 2020, 15 항.

† “네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카인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하느님께서 추궁하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 4, 9-11” (LS 70)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요한 19,28)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

우리 시대의 목마른 모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¹⁵

국제 연합에서 밝힌 그 자료, 그 수치(數値)를 잊지 맙시다.

날마다 천 명의 아이들이 - 날마다! -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¹⁶

† 주님의 기도

제 13 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각자의 양심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끼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녀들 앞에서

의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지상을 지나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나의 노동과 노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LD 33)

¹⁵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71-72 쪽.

¹⁶ 위의 책, 65 쪽.

- 지구는 모든 이를 위한 어머니입니다.

지구가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나 그보다 더 나쁜 오만한 주인 행세가 아니라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¹⁷

† 영광송

제 14 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위험이 됩니다. (cf. LD 73)

- 이제 스스로 존재하고 전능하며 한계가 없는 인간 존재의 개념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합시다. (LD 68)

† 영광송



¹⁷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16 쪽.

제대 앞에서

† 지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창조주께서 손수 빚으신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인류 가족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그만둘 것입니다.¹⁸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¹⁹

† 주모경

기도 역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JPIC

일러스트: 김삼화 아눈시앗다 수녀

¹⁸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77 쪽.

¹⁹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일부.